

계속해서 켜야 할 것

■ 본문

레 24:1-4

■ 시작 찬송가

36, 39, 80장
(통 36, 39, 101장)

■ 헌금 찬송가

357, 420, 421장
(통 397, 212, 210장)

▶ 등불

1. 등불의 사용

- 1) 성막을 밝힘
(출 27:20-21)
- 2) 집안을 밝힘
(마 5:15)
- 3) 결혼식에 사용
(마 25:1)
- 4) 어둠을 밝힘
(행 16:29, 20:8)
- 5) 빛을 비추기 위해 사용
(삿 7:16,20)

신앙생활을 할 때 ‘계속’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계속’은 성도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감사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단어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꺼뜨리지 말아야 할, ‘두 가지’의 불

‘성막’이라고도 부르는 ‘회막’은 ‘성전의 원형’으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고,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절대 꺼뜨리지 말아야 할 불이 있다’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꺼지면 안 되는 불이 등잔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등잔불을 계속해서 켜라’라고 말씀하셨고, 레위기 6장을 통하여 ‘성전 밖에도 꺼뜨리지 말아야 할 불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번제단의 불’입니다.

레 6:9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 두 가지의 불은 각각 상징하는 것과 기능이 다릅니다. 첫 번째, ‘번제단의 불’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불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모세에게는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불로 임하셨고, 신약에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성령을 받을 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하루의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러한 번제가 다 타려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번제물로 드린 양이나 염소, 그리고 소가 밤새도록 탈 때,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의 불로 함께하심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레 6:12-13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여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르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두 번째, ‘등잔불’은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성막 안은 가족을 겹겹이 쌓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곳에 등잔불이 꺼지지 않고 비추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가 바로 등잔불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 삶에 빛을 밝혀야 합니다.

‘켜야 할 불’과 ‘꺼야 할 불’

오늘 말씀은 초막절에 관한 23장과 안식년에 관한 25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절기 이야기 후, 등잔불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고백이 있는 절기였고, 많은 것들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물을 흘려보내는 전통’과 ‘빛을 밝게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에 불을 밝게 비쳤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에 많은 빛이 있었고, 많은 밝음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 8:12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 켜야 할 불

신앙의 삶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태워주는 뜨거움의 불이고, 하나는 밝음의 불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타고 있어야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불을 꺼뜨리는 것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감각과 본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교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사울과 솔로몬 같이 믿음의 불을 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을 이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시 119:105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2) 꺼야 할 불

우리의 삶에는 반대로 반드시 꺼야하는 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에 총량의 법칙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정해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24시간 안에 우리가 할 수 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쓸데없는 불을 많이 켜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엡 5:15-16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순결한 기름’의 의미

본문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감람을 찼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불을 밝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결한 기름은 갈아서 얻은 불순물이 있는 기름이 아니라, 찼어서 얻은 순수하고 향까지 좋은 기름입니다.

레 24: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찼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돌지며

이 기름의 중요한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탁월함’입니다. 우리가 조리에 이용하는 올리브 기름에도 등급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순결하고,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Oswald Chambers)는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일을 이루기 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을 탁월하게 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불을 켜야 하겠습니까? 작은 것에도 탁월함으로 감당할 때 그 불이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감람을 찼어낸 순결한 기름은 ‘구별된 기름’을 말합니다. ‘거룩함’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이고, ‘세상과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지만,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 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똑같은 기름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은 거룩한 기름이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산 위의 동네에서 저녁에 불을 켜면, 그 빛을 감추고 싶어서 감출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등잔불이 타올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 5: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등잔불’을 켜야 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삶을 비춰주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한결음도 온전히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밝아집니다.

사무엘상 3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와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음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으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누워서 등불을 지킬 때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성도인 우리는 소망의 등불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삼상 3:1-3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와 전 안에 누웠더니

2. 등불의 상징적 표현

1) 하나님

(삼하 22:29)

2) 예수님

(계 21:23)

3) 성경 말씀

(시 119:105)

4) 메시아 언약

(왕상 11:36)

5) 사람의 영혼

(잠 20:27)

6) 생명

(요 18:5-6)

7) 구원

(사 62:1)

오늘의 한마디

계속해서 등잔불과 번제단의 불을 켜는 성도가 됩시다!

공동기도제목

1.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대통령, 안보, 외교, 통일 등)
2. 교회를 위해서(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 등)
3. 해외선교지를 위해서(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4. 국내선교와 기관선교를 위해서(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5. 교회 안의 이웃을 위해서(군장병, 해외유학생, 환자 등)
6.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새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